

# 포기할 수 없는 맛? 세 달이면 입맛 바꿀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맛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다양한 맛의 음식을 섭취한다.



■ 미각 불균형, 만성질환과 암의 위험인자 될 수 있어

따라서 미각의 민감도와 균형은 건강과 직결된다. 문제는 미각도 균형이 깨진다는 점이다. 스트레스와 피로, 노화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침샘 기능이 떨어져 미각의 기능이 떨어진다. 또 피로가 쌓이면 보고도 무엇인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명확히 인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서 미각도 둔해진다. 또 미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둔해지는데 특히 짠맛에 둔감해지면서 소금 등의 섭취량이 늘고 이는 전해질 불균형과 혈압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 미각이 둔해지면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기도 한다.

■ 생존을 위해 발달한 미각

‘KISTI의 과학향기’ (제2764호)에 따르면 맛은 크게 짠맛과, 신맛, 단맛과 쓴맛, 감칠맛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맛은 혀의 미각세포가 감지하기 때문에 미각의 발달과 균형은 음식을 즐기는 데 중요하다. 생존에도 필수적이다. 사실 지구상에서 인간만큼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생명체는 많지 않다. 다수의 동물은 편식을 한다. 기린, 소, 말 등은 풀만 먹고 사자와 호랑이는 고기 마니아다. 덩치 큰 고래 역시 플랑크톤이 주식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식물의 뿌리와 씨앗은 물론 고기와 생선, 곤충과 곡물, 견과, 과일 등 다양하게 먹는다. 인간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진화학자들은 그 답을 미각에서 찾는다.

과거 영장류는 나무 위에 살면서 열매나 잎을 주로 먹었다. 그러다 약 200만 년 전부터 초원을 다니며 고기를 즐겼고 80만 년 전부터는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 먹었다. 1만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곡물을 섭취했다. 진화학자들은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으로 미각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먹을거리인지, 먹어도 해롭지 않은지 등을 판별하는데 미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인간은 단맛과 짠맛, 감칠맛이 나면 먹을거리로 분류했다. 우리의 주식인 쌀과 밀가루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또 생존에 필수인 소금은 짠맛이 나기 때문에 먹을거리로 분류한 것이다. 반면 신맛과 쓴맛은 피했는데 이유는 신맛으로 상한 음식을, 쓴 맛으로 독소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존과 직결된 만큼 그 맛을 느끼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농도도 다르다. 생존을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이 필요한 탄수화물과 나트륨 성분이 내는 단맛과 짠맛은 농도가 높아야 감지할 수 있는 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신맛과 쓴맛은 적은 양에도 민감하게 감지한다.

자극적인 음식도 미각이 둔해지는 이유로 꼽힌다. 입맛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는 8~12일 주기로 사멸하고 생성돼 10~12주가 지나면 혀 안에 모든 미각세포가 교체된다. 평소 짜게 먹던 사람도 꾸준히 싱겁게 식사하면 10~12주 뒤에는 이전에 먹던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싱겁다고 느꼈던 음식이 입에 맞게 된다. 자극적인 음식도 마찬가지다.

■ 미각 불균형의 원인, 스트레스와 피로부터 풀어야

미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각을 둔하게 만드는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균형 잡힌 음식 섭취와 운동,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다.

조리 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온도가 낮을수록 짠 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높을수록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금은 입자가 고울수록 짠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입자가 적은 소금을 쓰고 소금 대신 매운맛이나 감칠맛이 나는 향신료나 허브를 이용해 대신 짠맛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평소보다 짜고 달고 매운 음식만 계속 먹었다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한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한다.

Beauty Land  
**뷰티랜드**  
미용실

**Grand Opening Special**

**남자 헤어컷 \$8**

Mon-Fri 10am-7pm Sat 10am-6pm  
예약&문의 **562.393.0621**  
2530 W Whittier Blvd. #1, La Habra, CA 90631

**후지타 마사지 의자**  
마사지 의자 무료 체험관

다른 마사지 의자와 꼭 비교하세요!

★18개월 무이자 판매

**최신형**

**특별세일 \$3,950** (정가 \$7,950)

헤드 마사지, 전신 스트레칭, 발바닥 마사지  
원적외선, 3D 강한 지압 효과, 무중력 마사지

어바인 센터 714-788-3954 18017 Sky Park Circle, #C Irvine, CA 92614  
플러튼 센터 562-331-0924 6771 Beach Blvd, #E Buena Park, CA 90621  
www.cypressmaxx.com

# 동학(인내천) 시상 강좌

무 료 특 강



LA에 동학바람이 분다  
사람이 한울인 세상이 온다

강연일시

2018년 5월 11일 (금) 오후 6시~9시

강연장소

Homewood Suites – Convention Center  
2010 S Harbor Blvd.  
Anaheim, CA 92802

강연주제

왜 이시대에 인내천(人乃天)인가?

강사

- 고려대 전기공학과 석사
- 오레곤주립대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 석사
- 뉴욕대 전기 및 컴퓨터 공학과 박사
- 천도교 해외포덕위원회 위원
- 인내천 운동연합 위원

주관

인내천 운동연합

후원

문화 체육관광부

문의  
연락처

714.732.0385 / 714.788.8990 (손진영)

참석하실 분은 미리 연락주세요